

일반논문

4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방안

How can Handong University develop into
a genuine Christian university?

한윤식(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1. 서론

2.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과정에 대한 간략한 고찰

3. 한동대학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가능성 분석

- A. 기독교적 이상(Christian Vision)
- B. 기독교적 정신(Ethos)
- C. 구성원
- D. 학문적 수월성과 대학의 경쟁력
- E. 재정의 문제
- F. 교육과정의 문제

4. 결론

Abstract

**How can Handong University develop into a genuine
Christian university?**

Youn-Sik Han

Handong University has established its reputation among other universities and Christian churches in Korea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uccessfully maintaining its pure Christian identity since the begin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Handong University as a genuine Christian college by fully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and by battling against its secularization. To do this, three factors necessary for making a Christian college are being reviewed including the Christian vision of the university, Christian ethos embedded in various systems, and people who will realize the vision and ethos into teaching and research. In addition, there are three additional yet significant factors in the Korean situation that must be recognized and dealt with. These include maintaining a high academic excellence and competitiven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a good education as well as the curriculum. Like most other Christian colleges, Handong University's Christian vision is not yet in its fully developed, nor refined state; however, the members' commitment and passion have created a new Christian college culture in Korea and have changed the innately secular system into a more Christian on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substantial efforts that are being made to integrate faith and learning which is being increasingly emphasized among professors as well as student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Christian higher education, Christian identity of a Christian university, academic excellence, secularization, Christian scholarship, faculty development, (기독교대학, 기독교대학교육,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학문적 수월성, 세속화, 기독교적 학문, 교수개발)

서론

한국의 대학 중 기독교를 설립이념으로 표방하는 대학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한다.¹⁾ 한국의 기독교 대학은 대략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미션스쿨로 시작된 대학과 신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되어 형성된 대학,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일반 대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학교를 기반으로 출발한 소수의 대학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대부분 교육 또는 교목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채플과 한 두 과목의 성경 또는 신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이 일반대학과 다른 정도일 뿐, 뚜렷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거의 잃어 버렸다.

198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학문 운동이 보급되면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현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에서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기독교학문연구소)를 조직하여 기독교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기독교대학의 존립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²⁾

그러던 중 1995년에 한동대학교가 한국창조과학회를 이끌었던 김영길 총장을 주축으로 기존의 대학 또는 기독교대학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되는 교육정책과 보다 선명한 기독교적 구호로 주목을 받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출발하였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근 그 졸업생들을

1) Kuk-Won Shin, Where about and Whereto: Korea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APCHE Leadership Conference for the Asia/Oceania Region, Oct. 22-26, 2002

2) Bong Ho Son, “Academic Achievement and Christian Faith: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Far East,” IAPCHE Conference 2000, Dordt College, Sioux Center, Iowa, August 12-16, 2000.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내건 슬로건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 등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한동대학교는 전술한 세가지 범주 가운데 세 번째의 신 학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범주에 속 하며, 어느 기독교대학이 그러하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대학이란 과연 어떤 대학인가? 켈빈대학의 제임스 브라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대학에 대하여 “채플이나 성경과 목의 필수화, 봉사활동의 장려,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기독교적 덕성의 강조, 기독교적 신념의 세련된 표현 또는 학문과는 상관없이 없는 경건의 강조 만으로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수업이 곧 채플이 되고, 교수의 연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부터 교과목의 마무리까지 기독교정신이 스며들고, 그리고 신앙 원칙이 전공교육을 인도하게 되어야만 진정한 기독교 대학교육”³⁾ 이라고 표현하였다. 브라트가 말하는 기독교대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기독교적인 교육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의 추구와 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기독교대학을 말한다면 온전히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은 이상적인 기독교대학과 완전히 세속화된 기독교대학 사이를 연결하는 선 위에 각각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James D. Bratt and Ronald A. Wells, "Piety and Progress: A History of Calvin College,"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Richard T. Hughes and William B. Adri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chigan, 1997.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를 받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지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기 위하여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점들은 해결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과정에 대한 간략한 고찰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대학들과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의 세속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는 것은 한동대학교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조지 마스덴은 미국의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등의 훌륭한 사립대학들은 교회에 의하여 세워졌거나 형성되어 왔으며, 그보다 후에 시작된 공립대학들도 채플을 의무로 하는 등 대부분 개신교적 전통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개신교 주류 교단들이 관용, 자유주의 등을 수용하면서, 대학의 교육을 특정 종파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독교에 의한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다분히 회미하게 기독교적인 영적 또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전통을 배제하여, 보편적 지성, 도덕성과 민주적 자질을 추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세속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조엘 카펜터는 하바드가 초기에 가졌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소명은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충족하려고 한 시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프린스턴은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윤리학 사이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보다 광범위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세속화되어갔다고 설명

4) George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한다.⁵⁾

미국의 대부분의 사립 및 공립 대학교들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난 1960년대 이후에, 개신교 측에서는 신앙과 지식을 재결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미국의 주류 교단은 두 영역 이론을 채택하여 참 지식은 실험과 증명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여 믿음을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격하시켰다.⁶⁾ 미국의 카톨릭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다가 그 정체성을 잃어 버렸으며⁷⁾ 화란의 자유대학교도 대형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추구하다가 세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

제임스 벅클은 미국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었다고 보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기독교대학들의 경건주의적 성향을 꼽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 볼 대목이다.⁹⁾ 그는 경건주의란 인간의 외면적 삶에 대한 계몽주의적 설명에 압도되어 내면적인 삶으로 기독교신앙의 한계를 긋고 그 속으로 숨어 버린 것이라고 보았다. 내면적인 평온과 도덕적 덕목의 추구는 과학적 이성주의가 기승하며 외면적 세계를 세속화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꽃 피울 수가 있다. 믿음을 삶의 내면세계로 축소해 들어 가는 성향은 기독교의 지성적인 부분을 부정하게 되는 성향으로 나아가고 기독교를 지성(mind)이 아닌 마음(heart)의 세계로 축소해 버린다. 그리하여 세상에서의 외적인 삶에 대하

-
- 5) Joel A. Carpenter, *The Perils of Prosperity: Neo-Calvinism and the Future of Religious Colleges*; 심재승 역, 칼빈주의와 기독교대학의 미래, 백석저널, Vol 1 No1, 2002.
 - 6) Douglas Sloan, *Faith and knowledge: Mainline Protestantism and American Higher education*, Westminster/John Knox, Louisville, 1994.
 - 7) Philip Gleason, *Contending with Modernity: Catholic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96.
 - 8)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 Vol 5 No3, 1992.
 - 9) James Burchaell,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Eerdmans, Grand Rapids, 1998.

여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전혀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형된 기독교적 이상이 근원이 되어 주일과 평일을 분리하여 사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적 대학교육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기독교에 지적인 요소가 없다면 세속적인 지식으로 충분하고 기독교 대학은 필요가 없게 되며 굳이 기독교대학으로 젊은이들을 보내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경건주의적 기독교대학은 그 지적인 성분, 즉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세속화되어도 기독교적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경건주의적 구성원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그들이 기독교적 관례를 잘 따른다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작업 위에 기독교적 색채를 더할(added-on) 수 있다. 채플과 기도회, 선교활동과 봉사활동, QT, 기숙사의 공동체 생활 등에서 그런 대학은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와 활동에 부합하는 교수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대학은 교수나 학생들을 지적인 면에서의 삶은 신앙에 전혀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부분적 신앙인으로 만들 것이며, 그 두 극은 서로 너무나 떨어져서 결국 서로 갈등을 빚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이 갈등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하여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이해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게 한다.¹⁰⁾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 버리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대형화를 그 첫째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국가적 수요를 감당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우고자 하였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 하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수들이 필요하였고 그들의 신앙의 유무를 형식적으로만 점검하고 무분별하게 받아 들인 때문이라고 볼

10) Robert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Eerdmans, Grand Rapids, 2001.

수 있는데, 그 근처에는 학문과 신앙은 별 개의 영역에 속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¹⁾

2. 한동대학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가능성 분석

그렇다면 세속화를 이겨낸 대학들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Robert Benne는 북미주의 기독교대학들 중에서, 거세었던 세속화의 바람을 이겨 내고 기독교적 정체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을 분석하면서 그 핵심 요소를, 첫째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이상(Christian vision), 둘째는 기독교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학교의 제반 행위와 전통 및 추구하는 가치와 도덕적 행위의 기준 등에 나타나는 기독교 정신(ethos), 마지막으로 그 비전을 이해하고 보다 명확히 해 나가며 그 정신을 실체화시켜 나가는 사람(person), 이렇게 세 요소로 보았다.¹²⁾

그러나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대학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로 첫째, 한국사회는 오랜 세월의 유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현세지향적이 되었고 또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아서 학벌을 중시하므로 학문적 수월성을 갖춘 기독교대학이어야만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둘째, 기독교적 정체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기독교적인 학문을 추구하도록 훈련 받은 교수 요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한국에서의 사립대학교는 학생 등록금 수입에의 재정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기독교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

11) Kuk-Won Shin, *Where about and Whereto: Korean Christian Higher Education*.

12) Robert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으로 인하여 기독교적인 교육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¹³⁾

따라서 한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이상, 기독교적 정신의 구체적 양상, 그리고 그 구성원,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 보고 그 다음에 한국적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이 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분야인 학문적 수월성, 교수, 재정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서 한동대학교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짚어 보기로 하겠다.

A. 기독교적 이상 (Christian Vision)

기독교대학이 추구하여야 할 이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이해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와 지식을 체계화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패러다임(세계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적 이상이나 패러다임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오랜 교회 역사 및 전통, 신앙과 백에 기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지적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 전통 속에 세상의 기원과 종말, 그 본질과 역사, 인간의 본성, 타락상과 구원 그리고 기독교적 삶의 방식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가 담겨 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한 신학적 전통에 의하여 기독교대학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불행히도 북미주의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이 부분에서 취약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비전이 불분명하였던 기독교대학들은 세속화의 물결에 떠 내려 갔다고 볼 수 있다.¹⁴⁾

현재까지의 기독교대학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비전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 켈빈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의 이상이 개혁주의

13) Bong Ho Son, *Academic Achievement and Christian Faith: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Far East*.

14) Robert Benne,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신학,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아니하는 곳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¹⁵⁾라는 말을 100여 년간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경건주의적인 단순함 속으로 후퇴하지 않았으며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미국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시도를 굽히지 않을 수 있었다. 켈빈대학은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지성은 중요한 영역임을 인정하며, 따라서 강의실 을 채플과 동일하게 여겼다. 또한 세속적 학문에 의하여 발견된 진리라고 할지라도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문의 구속(redemption)을 추구하였다. 또 한 가지 특성으로서 개인의 변혁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켈빈대학은 가장 종교적이며 동시에 지적일 수 있는 삶을 개척하게 되었고 기독교적 학문의 요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기독교적 교육모델을 제시 함으로 많은 다른 대학이 켈빈대학의 뒤를 따르고 있다.

휘튼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은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초교파적 기독교대학이지만 140년 전 출발 당시에는 뚜렷한 웨슬리언 전통의 대학이었고 20세기 초반에는 미국 근본주의의 상징이었던 대학이었다. 교육 철학의 면에서는 휘튼대학은 두 영역(two sphere) 모델 또는 가치부가형(add-on) 모델을 취함으로써 교육내용은 세속적인 자유교양대학과 다름이 없었으나, 1970년경부터 아더 홈즈 교수의 주도로 켈빈대학의 개혁주의적 전통의 교육모델을 받아 들여 지금은 휘튼형 통합모델(Wheaton appropriation of the Calvin model)이 휘튼대학의 교수들이 취하는 주류

15) 인용 James D. Bratt and Ronald A. Wells, “Piety and Progress: A History of Calvin College,”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Richard T. Hughes and William B. Adri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chigan, 1997.

모델이 되어 있다.¹⁶⁾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복미주의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도 휘튼대학처럼 켈빈대학의 개혁주의적 통합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한동대학교는 모체가 되는 교단이나 신학과가 없다. 따라서 고유한 신학적 전통에 기인하는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¹⁷⁾ 한동대학교의 구성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슬로건 중 하나인 “Why not change the world?” 와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으로 즐겨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문구 속에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동대학교는 교수채용 등의 문구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로부터 학생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부분 갖는 성향인 경건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동대학교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믿음의 내적 차원과,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유지되고 부흥회 등으로 갱신되는 영성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따라 순수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 한동대학교의 구성원들은 국내에서는 어느 신학교 못지 않은 영성과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선교활동에 아주 적극적이다. 반면 믿음의 지적 차원이나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신앙적 접근이나 신학적 주제로부터는 후퇴하거나 이를 논하는 자체에 대하여 경원하는 태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 중 대다수는 신앙과 학문을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 받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국내외의 연구중심의 대학에서 훈련을 받았

16) Richard T. Hughes, Introductio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Richard T. Hughes and William B. Adri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Michigan, 1997.

17) 한동대학교는 공식적인 비전선언문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비전선언문이라기 보다는 대단히 실천적인 목표들이 기술되어 있는 사명선언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 특히 해외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교수들이 상당수를 점하는데, 국내에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소개되고 보급될 시점인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주로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하거나 활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접할 기회들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와 그리하듯이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이원론적 접근 또는 가치부가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및 미국의 복음주의에 속하는 교회들이 보이는 비신학적 성향과 어느 정도의 반지성적 성향들도 알게 모르게 지니고 있으므로 개혁주의적 기독교 교육 및 학문이 보이는 신학적 및 철학적 요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학문과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접근이 거의 유일한 기독교적 접근이라는 점과¹⁸⁾ 이를 복음주의 진영에서 채택하여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내고 이를 세속적 학문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황폐하였던 복음주의 진영의 지성분야가 이제는 부흥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¹⁹⁾ 켈빈과 휘튼을 포함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는 북미주 복음주의 진영의 기독교대학들의 모임인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y)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모토로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²⁰⁾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오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삶의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적용하고자 확장한다면 결국 학문이 신앙과는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18) Richard T. Hughes, Introductio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 Alan Wolfe, "The Opening of the Evangelical Mind," The Atlantic Monthly, Volume 286, No. 4, 2000.

20) 1976년에 기독교대학들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진작이 CCCU 결성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CCCU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교수의 신앙고백을 채용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수 중에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접하여 도전을 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지적인 또는 학적인 면에서의 신앙의 배제 또는 분리 성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 소수 있다. 이들로 인하여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보급 및 이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미 국내의 기독교세계관운동에 접하였거나 ‘기독교 세계관’ 및 ‘학문과 신앙’이라는 선택필수교양과목 및 다른 과목에서 이의 필요성에 대한 도전을 받은 학생들로 인하여 교수들이 도전을 받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또 켈빈대학 및 휘튼 대학 등 복미주의 기독교대학과의 교류 등 다양한 경로로 학문에서의 기독교적 신앙의 적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강점 중의 하나는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있어서 교육개혁에 늘 앞장서 왔다는 것이며 대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에 헌신해 온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 개인들도 강의의 수행에 있어서 보다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에도 반영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늘 개혁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대학의 이념에 공감하고 기독교적인 교육에 헌신한 사람들이며 학생들의 교육에 대부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늘 강의나 운영에 실제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동대학교의 교수들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보다 기독교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분야에도 영성을 적용하고자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B. 기독교적 정신(Ethos)

기독교는 지적 차원 이상의 것이므로 세상의 사물에 대한 이해체계인 비전은 살아서 구체화되어 그 정신(ethos)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

어 있다. 기독교의 특정 전통마다 특정한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배의 식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다. 대학의 경우는 채플과 기독교적 절기의 준수 여부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또한, 기독교 정신은 도덕행위의 형태로, 겸손, 봉사 등의 가치 추구에서 드러나며, 소명으로서의 직업의 추구에서도 드러난다. 그 대학의 신학에 담겨 있는 정신이 도덕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신은 그 대학의 기독교적 비전에 의하여 공식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정당화된다. 또 반대로 살아 있는 정신은 비전을 더 구체화 시켜 나가기도 한다.

한동대학교의 채플은 어느 신학교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기독교 공동체로서 진지하게 드리는 예배다. 수요일은 채플이 2회로 나누어 교대로 드려지며 그 시간에는 다른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 없다. 학생들은 6학기 동안 채플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요일의 아침마다 교수기도회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 학내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기도회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행하여지고 있다.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제도는 팀제도와 담임교수제라고 할 수 있다. 한 팀 당 교수 일인에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채플시간 전후로 팀모임을 매주 갖게 됨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의 인격적 교류의 장이 되며 학생들간의 공동체 훈련의 장이 된다. 교수들은 팀의 멘토(mentor)로서 학생들을 매 학기 개별 면담하고 학사, 신앙 문제 등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방은 팀 단위로 배정이 되므로 팀 생활이 대부분의 학생 생활의 주축이 되며 선후배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QT를 하는 등 공동체 생활을 익히며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므로 그야말로 모든 학생들이 가족공동체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셈이다.

한동대학교의 학생 동아리의 대다수가 봉사, 찬양, 선교 등 기독교 동아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하여 지는 그룹성경공부, QT 나눔 모임, 각종 선교팀 및 신앙단체 동아리 또는 교목실에서 행하는 신앙훈

련프로그램 등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시작한 성결서약식을 비롯하여 무감독 양심시험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전통이 되었으며 사랑, 정직, 봉사 등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한동명예제도, 등록금을 못 낸 학우들을 돕는 오병이어 운동 등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운동이 학생 자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감동적인 예배의 형태로 가짐으로 예식에서도 기독교 정신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의 축제와 학부, 팀, 동아리의 MT 등에서도 일반대학에서 행해지는 술과 도박 대신에 찬양과 건전한 게임과 토론 등의 기독교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 있는 대학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지역곳회를 섬기는 학생들이 적다는 점, 따라서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해 지키는 것에 대한 정신이 점차로 해이해 지는 점, 사순절이나 부활절 등의 교회의 절기가 학사력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학생수가 늘어가면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고 교수의 수가 늘어 갈수록 학생 관련 활동이나 팀 활동 등에서 점차로 느슨해져 나가는 점이 관측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동대학교가 학생수 3천명 내외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교내의 구성원들간에 학생들에 대한 정책의 조그만 퇴보도 민감하게 느끼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동대학교는 한국적 상황에서 아름다운 기독교적 전통을 이루어 가고 있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지속되며 기독교정신이 살아있는 한은 한동대학교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진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 구성원

한동대학교 입학생들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며 상당수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학생들 스스로 유지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복음주의적인 교회 출신 학생들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높은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하는 비기독교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대부분 알고도 한동대학을 선택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기독교적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내의 일반 대학과는 다른 무감독 양심시험의 전통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스스로 지켜 나가고 있다. 한동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학업태도에 있어서도 성실하며 재학 중에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에서 그 대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이기 보다는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한 번 임용되면 수십 년간 재직하며 학생들을 양육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는 교수들의 임용 시에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요구하는 신앙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거나 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채용 절차에서 신앙을 엄격하게 점검하며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에 헌신할 것을 임용의 필수 요소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원 그리스도인인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자발적 및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동대학교가 특정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한동대학교의 교수들의 신앙 성향은 다양하나 대부분 복음주의적으로 상당수의 교수들이 국내외의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중요시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는 열심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들은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자신의 연구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희생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수들의 강의에 들이는 열정과 에너지는 국내의 어느 대학과도 견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교수의 신앙과 학생들에 대한 사

량에 기초한 것이다. 한동대학교에서의 학생들과 교수의 관계는 최근 학교의 규모가 점차로 커짐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초기보다 약하여 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친밀한 사제지간으로 삶을 서로 나누는 신뢰의 관계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한동대학의 교수들도 기독교적인 학문 연구에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용 후에도 기독교 학문 공동체의 교수라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수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기독교학을 추구하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교수의 역량과 방향성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독교대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교수 임용과 훈련이 전부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한동대학교에 시급한 것은 다양한 교수개발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먼저 기독교적 학문추구에 눈을 뜬 국내의 학자들을 초청하고 교류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가는 캘빈대학의 경우도 정년보장교수가 되기 위하여는 3주간의 집중세미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휘튼대학도 모든 신입 교수는 2학기에 걸쳐 매주 열리는 20여 개의 세미나에 의무 참여하게 하고 있다. 양교 모두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의 심사 시에 자신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까지 제출된다. 또한 전공별로 선배교수들이 후배교수들의 기독교적 학문 추구를 도와 주는 멘토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동대학교에서도 기독교학문을 먼저 접한 국내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교수연수회를 개최하고 신입교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기독교학문과 기독교교육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교수들의 개별적인 연구와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

독학술교육연구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또한 신앙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에세이를 교수의 재임용 또는 승진 인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안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 자신이 먼저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에 관한 연구를 우선시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 하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의 학문을 신앙과 통합하여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학문의 분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철학, 신학 등의 인문학적인 배경을 많이 요구하게 되므로 강의와 연구의 부담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으며 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인 기독교적인 교육을 위하여는 교수들이 이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중간 결과들을 연구성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교수들은 노력의 결과, 즉 기독교적 학문의 성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 학문적 수월성과 대학의 경쟁력

손봉호 교수는 한국에서는 학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문적 수월성을 갖춘 기독교대학이어야만 존립이 가능하지만 기독교적 정체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서 복미주의 기독교대학들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다.

대학의 존립을 결정하는 경쟁력으로서 학문적 수월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으며 학문적 수월성은 교수의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든 대학들이 이러한 학문적 수월성이 존립과 경쟁력의 근거로 판단하여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이 학문적 수월성은 외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시적

인 평가기준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있는 기독교 정신 함양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는 세상적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²¹⁾ 기독교대학으로 출발한 하바드나 프린스턴 등도 이러한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 세속화되었는데 이 대학들은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가 기독교적 정체성의 추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들이 세속화되는 줄도 모르고 세속화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²²⁾

한동대학교의 학문적 수월성은 아직 그 설립 초기 단계라는 점과 또 교육 중심의 대학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현재 한동대학교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백분위 평균은 인문계열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에 고교생의 상위 약 5%에 해당한다.²³⁾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후의 평판으로 살펴 볼 때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학으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동대학교의 일반대학과의 경쟁력의 근원은 선명한 기독교적 색채와 새로운 개혁적인 교육 정책과 교수들의 강의에의 헌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 수월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교육의 수월성만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으며, 대학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연구이므로 기독교대학도 대학인 이상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의 사명중의 하나가 기독교적

21) David F. Wright, "Christian University and Scientific Excellence," 제6회 기독교문화 및 신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숭실대학교, 1998.

22) 인용 Robert Benne, *Quality With Soul*.

23) 한동대학교는 무전공무학과 입학을 시행하므로 계열간 구분이 없이 한 단위로 선발함. 합격자가 아닌 최종 등록학생의 수능점수의 평균점수는 인문계열의 백분위 점수 94.77%에 해당함. 그리고 중간 50%의 학생이 대략 전국 상위 3%에서 7%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음(2000학년도 입학자료). 이후의 입학생의 성적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학문의 발달이므로 기독교적 연구중심대학도 필요하다.²⁴⁾

그러나 인적자원이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학은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 연구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는 그 대학의 사명과 재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한동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 또는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최우선 순위는 교육에 주어져야 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의 방향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기독교대학으로서는 시설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신지식 창출의 연구활동보다는 새로이 발견되는 지식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정제하여 기독교세계관으로 편입시키는 연구활동 즉 학문을 구속(redeem)하는 연구활동이 학생들의 교육의 면에서 도움이 되며 기독교적 학문의 추구의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외적인 수치는 낮아 질 수 있겠지만 학문적 수월성 그 자체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는 어느 특정 분야에 많은 교수들이 집중하여 공동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자원이 제한된 기독교대학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강화와 상호 배척의 관계로 될 개연성은 많지만 언제나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은 기독교적 학문추구의 한 방법으로서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독교대학의 연구활동이 기독교적 학문추구로 방향이 잡힐 경우에는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는 기독교적 정체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학문적 수월성은 결국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과 탁월한 교육을 할 수 있

24)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Institute of Christian Studies 등이 있다.

는 환경과 여건에서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연구실적을 얻기 위하여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낮춤으로 그 비율이 적정선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대형강의를 지양하고 최신 교육기자재 설치 등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E. 재정의 문제

손봉호 교수는 또 한국에서의 사립대학교는 학생 등록금 수입에의 재정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기독교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하여 기독교적인 교육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²⁵⁾ 이는 기독교대학의 재정문제와 기독교적 정체성, 그리고 학생구성비의 관계를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생들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학내 비기독교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교수의 구성문제와 결합되어 세속화로 연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독교적 색채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개교 첫 해에 비기독교학생들에 의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구성원들의 80% 이상의 절대 다수가 신실한 기독교학생이며 비기독교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의 특성과 교육정책들을 알고 기독교적 운영방침에 동의하고 들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학생측에서 대학의 교육, 행정 등에서 기독교적 정신의 부재를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동대학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중의 하나는 여타의 기독교대학

25) Bong Ho Son, *Academic Achievement and Christian Faith: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Far East*.

과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이다. 이 재정의 문제가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문적 수월성, 그리고 기독교적 인성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단적인 예는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라고 하겠다. 교수들의 강의를 줄여서 연구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을 늘여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학생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는 교수들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는 적절한 학생 대 교수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동대학교의 전체 학생 편제정원은 약 3000명이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은 교육부 보고인원 대비 28.6:1 전일제 근무교원 대비 26:1 정도이다.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는 약 65%이고 한동대학교는 개교 이전부터 재정의 문제를 안고 시작하였으며, 재정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소규모 대학의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 재정의 부족분은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데 한동대학교는 소속 교단이 없으며 재단은 재정을 지원할 만한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족분의 대부분을 교회와 개인의 헌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므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어야 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기독교 대학은 소규모를 지향해야 한다.²⁶ 학생 대 교수 비율은 적어도 15:1 정도까지 줄여 나가야만 기독교적 교육의 질과 효과, 그리고 학문적 수월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²⁷⁾ 지금의 학생수를 유지한다고 하

26) 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Alta Vista College Press, Seattle, Washington, 1988.

27) 졸업학점수, 학생수, 평균학급크기, 교수의 책임시수 등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15:1 정도되어야 교육의 질과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하로 내려가야 학문적 수월성을 기대할 수 있다. 켈빈대학이나 휘튼대학 등 대부분의 학문적으로 우수한 기독교대학들의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6:1 정도이며 우수한 학부중심 소규모 사립대학들은 8~10:1 정도이다.

더라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기독교대학이 지향하는 바인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또한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기독교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정도로 그 가능성과 결과물, 그리고 뚜렷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보여야만 한다. 만일 기독교대학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지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는 바로 세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요 재정을 학생수를 늘려서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앞서 손봉호 교수의 지적처럼 불신자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다수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교과과정 등에 수반되는 요구와 간섭이 있게 되고 이것 역시 기독교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속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로서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팽창하다가 세속화되어 버린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⁸⁾ 아직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특정 종교를 내세우는 학교라고 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제거하거나 숨길 것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재단의 운영권을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특정한 한 기관이 한동대학교의 운영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28)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소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국의 대학이 대학 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존립하듯이 한동대학교도 스스로를 섬기는 세속적인 대학으로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교회나 교단으로 예측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며 현재처럼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전체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후원과 기부금의 경향을 살펴볼 때 향후 한동대학교가 계속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내의에서 기부금 조성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F. 교육과정의 문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학문을 하고, 학생들을 기독교적 지성과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양질의 기독교적 교양교육은 필수적이다.²⁹⁾ 오늘날 대학교육이 직업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직업교육(전공교육)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따라서 든든한 기독교적 교양교육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개교 10년을 앞두고 신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개편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개교이래 한동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끌어 온 이념의 선두에는 체플, 팀제도, 기독교적 교양과목 등 기독교정신에 기초한 전인적 인성교육이 있으나, 현재의 기독교적 교양과목은 전임교수의 절대부족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³⁰⁾

29) Arthur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Eerdmans, Grand Rapids, 1975.

30) 한동대학교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팀,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제언*, 2003.

한동대학교의 교수진의 구성은 전공교육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으며 교양교육 쪽은 전반적으로 교수진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한동대학교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훌륭한 교양교육 교수를 초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양교육의 전임교수를 전공 분야의 교수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교양교육을 전담할 교수선발이 어려운 이유로서 인문학 등의 교양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는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교양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교육을 기독교 신앙과 통합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계절학기 과목군(群)을 개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가 자신의 전공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계절학기로 개설하게 하면서 교수에게는 이의 연구비를 지원 하는 것이다. 강의의 운영 방법, 장소, 형태 등은 교수의 자유로 하되 다만 사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허가 하는 형태로 한다. 이후에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면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수년간 계속된 강의는 그 결과를 논문 또는 단권으로 출판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기독교적 학술활동을 현실적으로 교육과 접목시키고 장기적으로 교수의 기독교적인 학문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정규 강의에서는 잘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면 학생과 교수는 물론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현실적인 해결방안까지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그들의 직업(전공)으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만 만족해서는 진정한 기독교대학이 될 수는 없다. 배출해내는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조명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균형을 갖추며 자신에게 주

어진 소명을 파악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4. 결론

한동대학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만성적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교육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한동대학교 구성원들의 집단적이고 순수한 신앙적 헌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로 인하여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재정적 후원을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캘빈과 휘튼 등 선도적 기독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한동대학교에서도 가장 부족한 점이 신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기독교적 비전의 부분이다. 하지만 순수한 신앙과 헌신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대학의 핵심 영역인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는 곧 신앙에 기초한 학문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한동대학교는 전혀 세속적인 제도와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이를 늘 변혁하여 나가면서 기독교적 정신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위시하여 교원인사제도 등 기존의 곳곳에 스며 있는 비기독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독교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동대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있는데 그 근원도 신앙적 열정에 있다.

그러나 한동대학교가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인의 지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동대학교가 교회와 교인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더욱 선명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독교적 학문 추구를 통한 학문적 수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학문적 수월성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요원과 학생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그리고 재정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동대학은 생존 전략으로서 영성, 발전전략으로서 경건함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이 영성과 경건함은 모든 행정제도, 전통 및 추구하는 가치와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수의 학문행위와 교육에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와 학생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간다면 삶의 전 영역, 특별히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영역에서 믿음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해 온 기독교적 문화 위에서 모든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늘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와 운영에도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어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모습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윤식(韓允奭)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North Carolina 주립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기계연구원 및 Wake Forest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995년부터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 4년 동안 교무행정으로 봉직하였다. 연구분야는 의학영상, 디지털신호처리 분야이며 기독교대학교육, 통합적 공학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